

# 광주 소비자물가 5년새 16% 올랐다…신선식품 37% 꺾충

호남통계청 분석…분기 평균 0.6% ↑  
채소 56%·과일 36% 순으로 많이 올라  
국제 유가 영향 경유·전기가스 요금도 ↑

최근 5년간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16% 오르  
고 신선식품 상승률이 37%까지 치솟으면서 서  
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.

23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‘최근 5년간 (2  
019~2024년) 광주시 소비자물가 변화’에 따르면  
광주 소비자물가 지수는 2019년 1분기에서 2024  
년 4분기까지 24분기 동안 15.9%, 분기 평균 0.6%  
각각 상승했다.

이는 2020년 4분기 이후부터 지속된 고유가와  
러시아-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, 미국금리 인  
상 정책 등 고환율 영향을 받아 물가 지수  
는 18.2% 상승했으며 분기 평균 0.7% 올랐다.

가장 많이 오른 품목은 식품으로 28%, 분기  
평균 1.1% 상승했다. 식품 이외의 같은 기간 13.0  
%, 0.5%가 각각 올랐다.

식품 이외의 주요 상승 품목으로는 5년간 경유 7  
5.4%, 섬유유연제 44.8%, 휘발유 41.7%, 전기료 3  
2.8%, 삼푸 30.8%, 보험서비스료 29.7%, 도시가

스 28.5% 등 순으로 크게 올랐다.

특히 식품은 국제유가 상승과 코로나19 팬데  
믹이 겹친 2020년 2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 
105.8% 상승했다.

하지만 이후에도 상승세는 그치지 않았다. 20  
22년 4분기부터 2024년 4분기 기간에도 119.8%이  
라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 장비구니 물가  
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.

소비자물가 중 신선식품은 분기 평균 1.4% 상  
승하는 등 36.5% 치솟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 
나타냈다.

신선식품 중 신선채소가 55.9%, 분기 평균 1.9%  
각각 상승했으며 뒤를 이어 신선과일 36.2%·1.4  
%, 신선어개 18.0%·0.7%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.

이 같은 신선식품 물가 폭등 요인으로 중동정  
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이상기후와 같은  
날씨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호남통계청은  
분석했다.

광주 서비스 물가도 5년간 12.9% 상승했다. 가  
장 높게 오른 품목은 개인서비스 (20.0%) 품목으  
로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대리운  
전이용료 45.9%, 컴퓨터수리비 45.2%, 보험서비  
스료 29.7%, 떡볶이 20.5%, 세탁료 20.1%, 가전제  
품수리비 18.4% 순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.

/안태호 기자



‘해킹 사고’ SKT, 오늘부터 신규 영업 전면 재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침해 사고로 SK텔레콤에 부여한 신규영업 중단을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  
힌 23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매장 모습. /연합뉴스

## 광주은행, 금융현장소통 토크자문단 간담회 개최

소비자 눈높이 맞춘 금융 애로 공유

광주은행은 23일 “지난 19일 광주은행 본점에  
서 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, 이길성 금융감독원  
현장소통담당관, 강인근 은행연합회 차장 및 관  
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‘금융현장소통 토크자문  
단 간담회’를 개최했다”고 밝혔다.

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현장소  
통반 1명,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자  
1명과 광주은행 고객패널인 토크자문단 6명을

비롯해 광주은행 임직원이 함께했으며 금융제  
도 및 관행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등 금융소비  
자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.

토크자문단 고객패널들은 간담회에서 ▲국  
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금융상품 비교정  
보 플랫폼 구축 ▲모바일·온라인 대출 과장 광  
고 규제 강화 ▲대출 거절 사유 통지 의무화 등  
금융 관련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했  
고 이에 대해 금융현장소통반은 적극적으로 의  
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.

김은호 광주은행 부행장은 “고객의 목소리를  
청취하고 금융소비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  
는 뜻깊은 자리였다”며 “앞으로도 광주은행은  
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개선된 서비스  
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한편 광주은행은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 
개선을 이뤄나가고자 고객패널 제도인 ‘토크자  
문단’을 지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  
고 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객중심경  
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.

/정은솔 기자

## HD현대삼호, 스마트 조선소 구축 전환 ‘박차’

‘AI로봇 현장실증 교육센터’ 출범

HD현대삼호가 조선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스  
마트 조선소 구축을 위한 전문 교육센터를 출범  
해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23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최근 자동화·지  
능화 기술 향상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‘AI로  
봇 현장실증 교육센터’를 준공해 본격 운영에  
나섰다.

이번 센터 건립에는 정부의 뿌리산업 특화단  
지 지원 사업 등 국비를 포함해 총 16억7천여원  
이 투입됐다.

센터는 로봇 개발과 실증, 오퍼레이터 교육,

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‘로봇 Total Solution’  
통합 공간으로 다양한 협동로봇과 AI 분석 장  
비, 교육 설비 등을 완비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 
모두 가능하도록 구성됐다.

전남도 관계자는 “AI로봇과 스마트 조선소  
기술 향상을 적극 지원해 전남 조선산업의 경쟁  
력을 높이고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”고 말  
했다.

김재을 HD현대삼호 사장은 “AI와 로봇 기술  
을 기반으로 한 연구개발 실증은 물론, 사내의  
협력사 작업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까지 수행하  
는 미래형 스마트 조선소 거점으로 발돋움할  
것”이라고 전했다.

/영양=나동호 기자

## 한전, 3분기 전기요금 동결

연료비조정단가 kWh당 ‘5원’ 유지

한국전력이 냉방기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  
는 올해 3분기(7~9월) 전기요금을 현재 수준과  
동일하게 유지한다.

한국전력은 23일 “올해 3분기에 적용할 연료  
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(킬로와트시)당  
5원으로 지속한다”고 밝혔다.

전기요금은 기본요금, 전력량요금, 기후환경  
요금,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.

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  
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 
것이 매 분기에 앞서 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

다.

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, 액화천연가  
스(LNG)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  
당 ±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 
‘+5원’이 적용 중이다.

전력 당국은 3분기에 연료비조정요금을 현

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기본요금, 전력량요금,  
기후환경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따로 인상하  
지 않아 결과적으로 3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된  
다.

한전 관계자는 “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의 경  
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  
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2분기와 동일하게  
kWh당 +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  
보받았다”고 전했다.

/안태호 기자

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

“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”

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'전통시장'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'전통시장'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. 각 자치단체에서는 '전통시장'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. 광주매일신문은 시·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.

호젓해서 좋은  
신안지도전통시장

◎ 장이 서는 날 ◎ 3, 8, 13, 18, 23, 28일

※ 신안군내시장 : 송도수산시장, 신안젓갈타운

주최 : 광주매일신문 · 광주매일 TV 후원 : 1004 신안군 광고문의 : 062)650-2099